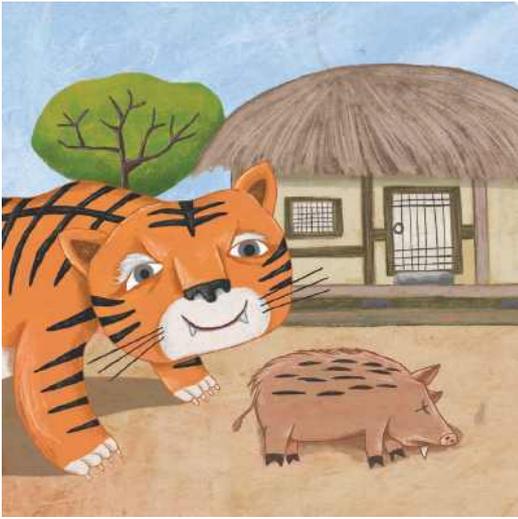


◎ 내가 아는 호랑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학년 반, 이름



호랑이 형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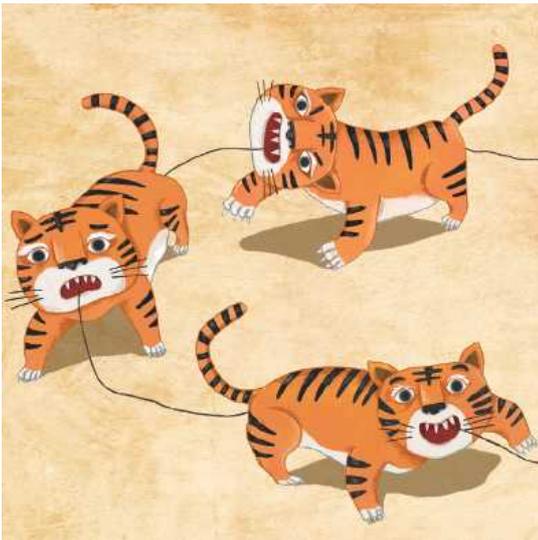
산속에서 마주친 호랑이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절을 하는 선비의 말을 믿고, 선비의 병든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 고기를 잡아 가져다 주고, 산삼을 구하러 다닌 호랑이의 이야기이다.

Q 내가 산 속에서 호랑이를 만난다면 선비라면 어떤 시예로 살았을까요?

.....

.....

.....



즐즐이 펜 호랑이

옛날 옛적에 게으른 아이가 있었고, 보다 못해 폭발한 엄마의 성화로 뒷마당을 파서 참깨를 심었다. 그 참깨로 기름을 짜 강아지 한 마리를 기름에 절여 산속에 놓아두었다. 배고픈 호랑이가 미끌미끌 기름 강아지를 통째로 꿀꺽 삼키면, 미끌미끌 기름 강아지가 호랑이 똥구멍으로 나온다. 게으른 아이는 기뻐하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마을을 위협하는 호랑이를 한꺼번에 일곱 마리나 잡게 된다.

Q 내가 이 이야기 속 잔소리하던 ‘게으른 아이’의 엄마라면, 호랑이를 일곱 마리나 잡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 같나요?

.....

.....



해님 달님

엄마로 변장한 호랑이가 어린 남매만 사는 초가집에 찾아온다. 호랑이와 실랑이를 하다 결국에는 해와 달이 된 남매의 이야기이다.

오빠가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엄마라든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거칠지 않아요.'

호랑이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그렇단다.'

Q 오빠는 무서운 호랑이로부터 동생을 지켜야 했어요. 오빠는 호랑이가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팥을 심던 할머니 앞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서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할머니는 팥 농사를 다 지어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

동짓날 눈물을 흘리며 팥죽을 쑤던 할머니 앞에 알밤, 송곳, 개똥, 맷돌, 자라, 멍석, 지게가 차례로 와서 팥죽을 달라고 한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씩 얻어먹은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호랑이를 물리친다는 이야기이다.

Q 알밤, 송곳, 개똥, 맷돌, 자라, 멍석, 지게는 할머니의 어떤 마음 때문인지 호랑이를 물리쳤을까요?
